

해외논단

제6장 『두르가띠바리쇼다나 띠뜨라 (*Durgatiparīśodhana-tantra*)』*

-사자(死者)의 구제와 후생안락을 목적으로- (櫻井宗信)

강향숙**

요약문

『두르가띠바리쇼다나 띠뜨라』는 사후에 망자를 지옥·아귀·축생과 같은 악취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건립하는 만다라와 관정 등 밀교의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악취로부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장례의식과 추선의례(追善儀禮), 구제한 중생의 장수연명을 위한 의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4종 호마법인 식재(息災)·증익(增益)·경애(敬愛)·항복(降伏)법을 행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밀교의 관정을 수여받은 아사리는 악취에 떨어진 망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만다라를 조단하고 관정을 집행한다. ‘무량수 만다라’는 연명장수를 실현함으로써 악취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범부 및 깨달음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행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오기 위한 만다라이다. ‘수명성취 만다라’는 사신(死神)을 복종시켜 생각지 못한 죽음으로부터 중생을 구제하고 연명장수를 실현하기 위한 만다라이다. ‘분노 만다라’는 중생에게 화복(禍福)을 가져오는 모든 장애마를 몰아내는 분노존 만다라이다.

*이 번역은 『인도後期密教』 상권 6장에 수록된 사쿠라이 카츠히로(櫻井宗信)의 『『두르가띠바리쇼다나 띠뜨라』-사자(死者)의 구제와 후생안락을 목적으로-』를 번역한 것이다. 『두르가띠바리쇼다나 띠뜨라』는 사후에 망자를 지옥·아귀·축생과 같은 악취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건립하는 만다라와 관정 등 밀교의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7세기 이후 인도 밀교문헌에 나타난 장례의식·추선의례(追善儀禮), 구제한 중생의 장수연명에 대한 밀교의례의 실천적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동국대학교 연구초빙교수, kang-nix@daum.net

아사리는 이러한 만다라를 조단하여 관정의식을 행한다. 관정의식은 아사리와 만다라를 구성하는 특정 존격의 합일을 가능하게 하며, 아사리는 존격이 가진 위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아사리는 망자를 관정의 장소로 소청하여 부처의 세계인 만다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때 망자는 부처의 자비에 의해 악취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주제어 : 두르가띠빠리쇼다나 탄뜨라, 장수연명 의례, 호마, 관정, 무량수 만다라

1. 후생안락과 밀교

죽은 후 다시 태어나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 또는 사회에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내세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먼저 간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가 큰 관심사가 된다. 자신과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후생안락’을 어떻게든 실현하고 싶은 바람을 밀교적인 의례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게 한 것이 본장에서 채택한 『두르가띠빠리쇼다나 탄뜨라(Durgatiparīśodhana-tantra)』, 이른바 『악취청정 탄뜨라(惡趣淸淨tantra)』이다.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인간이 지성을 가지게 된 이래로 계속 존재해 왔던 이 의문에 대해 고대 인도인들은 ‘윤회전생’으로 대답했다. 현세에서의 선하고 악한 행위로 내세가 정해진다는 이 사고방식은 ‘6도윤회’라는 불교용어와 함께 현대 일본에도 잘 알려져 있다. 현세에서 선한 행위를 했던 자는 천계(신들의 세계)와 인간계에서 안락한 후생을 맞이하지만, 그곳에서 수명이 다하면 다시 다른 환경에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천계에 있거나 인간계에 머물면서 악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지옥·아귀·축생의 고뇌로 가득 찬 내세라는 비참한 과보를 받게 된다. ‘자업자득’의 원리에 기초하여 개개인에게 책임을 엄밀하게 물으며 끝없이 연속하는 생과 사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 윤회를 어떻게 극복하는가는 오랜 역사를 지닌 인도 불교에서도 줄곧 중심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다. 다양한 사상적 경향을 발전시켜 온 불교인만큼 윤회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른 태도가 존재했다. 그러나 석존이 도달한 깨달음에 의해 윤회에서 해탈할 수 있다는 불교의 일반적 이해에 근거하

는 한 그 교설에 기반하여 행해진 ‘불도수행’은 수행자 자신이 윤회로부터의 해탈을 추구하는 것인가(自利), 타자를 윤회로부터 구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利他)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현세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윤회를 극복하려는 통로이자 방책이라는 의의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수행자의 정진수행이 깊어짐에 따라 그 결과로 얻어지는 일종의 위력에 의해서 그는 ‘악취’—앞에서 든 지옥 등 3종류의 나쁜 경우—에 빠지는 것에서 멀어지게 되고, 수행에 적합한 환경에 계속 존재하게 된다고 여겨졌다. 결국 수행에의 매진은 결과적으로 아직 해탈하지 않은 자에게 윤회 속에서 보다 좋은 내세를 약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윤회로부터의 해탈, 그리고 해탈에 이르기까지 윤회계에서 보다 좋은 곳으로 환생한다는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생각해 볼 때,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점에서 바라는 결과가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를 얻지 않은 채 죽어버린 자, 말하자면 불도와 인연을 맺지 않은 채 이미 내세에 도달해 버린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고뇌로 가득 찬 후생을 맞이하고 있다면 그것을 구제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현실적인 이익의 획득을 추구하였던 밀교도들이 이 문제에 흥미를 보이지 않았을 리가 없다. 7세기 중반에 현장이 번역한 『발제고난다라니경(拔濟苦難陀羅尼經)』이라는 초기 밀교경전에는 ‘멸악취왕다라니’라는 일종의 주문이 설해져 있는데, 이 위력에 의해 지금 현재 악취에서 고통 받고 있는 중생을 구해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기에 한역된 『불정존승다라니경(佛頂尊勝陀羅尼經)』에도 석존의 정수리에 머물러 있다는 불가사의한 힘에 대한 신앙에서 유래하는 ‘불정존승다라니’의 독송에 의해 자타의 죄장(罪障)이 소멸되어 악취의 고뇌도 소멸한다고 설해져 있다.

다른 한편으로 밀교의례—거기에는 주문을 외우는 것도 포함되지만—를 실천하는行者 자신은 후생안락뿐 아니라 깨달음에도 도달할 수 있다고 설하는 밀교경전도 비교적 빨리 등장하고 있다. 밀교도의 관심은 현세이익의 성취에 머물지 않고, 사후의 경우로 향해있었던 것이며, 그 실천은 자타를 악취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효능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약 7세기 이후에 이르러 밀교경전은 사상과 의례라는 면에서 보다 정밀하게 조직된 모습을 취하게 된다. 일본의 진언종에서 ‘양부의 대경’이라 불리며 존중되는 『대일경』과 『진실섭경』이 대표적이며, 특히 후자가 후기 인도밀교의 기반을 형성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조직화된 대물(大物)경전의 출현으로 그 이전에 나타났던 다양한 밀교적 요소[존격과 주문·의례 등]가 그 체계에 편승하여 재편된 것으로 보인다. ‘후생안락’과 관련된 몇 가지 요소—거기에는 먼저 서술한 멸악취왕다라니와 불정신앙도 포함된다—도 소박한 모습으로 중장비를 갖추고 모습을 새롭게 하여 『두르가띠빠리쇼다나 판뜨라』라는 새로운 경전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2. 『두르가띠빠리쇼다나 판뜨라』란 무엇인가

본 판뜨라의 정식 명칭인 『*Durgatiparīśodhana tejorājasya tathāgatāyārhatē samyakṣambuddhāsya kalpa*』는 『일체의 악취를 완전히 정화하는 광선의 왕자라는 여래·아라한·정등각자에 관한 의례규칙』을 의미하지만, 통상적으로는 표기된 것처럼 줄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유전전기(流轉前期: 왕국시대)에 번역된 티벳어 역만이 남아있고, 범본 및 한역은 현존하지 않는다. 다만 본 판뜨라를 개정하여 만들어진 일종의 별도의 버전인 범본이 네팔에 남아있고, 이들 교정 텍스트는 20년 전에 출판되어 있는 것 외에도 티벳어 역이나 일부 한역도 참조할 수 있다.

이처럼 본 판뜨라에는 기본이 되었던 버전과 그것을 본(本)으로 하여 만들어진 별도의 버전이 있어서 양자를 구별하여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티벳의 전통에 따라서 전자를 『정화 판뜨라(sByon rgyud)』, 후자를 『9불정 판뜨라(gTshug gu'i rgyud)』로 부르기로 한다.

먼저 본 판뜨라의 유의(流儀)는 중국 및 일본의 밀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네팔과 티벳에서는 지금도 장례식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미에서는 ‘살아있는 경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네팔의 밀교승은 대부분 『9불정 판뜨라』 범본 사본을 소지하고 있고, 교정 텍스트가 발행된 것도 그

리한 사정에서 유래한다.

그러면 처음으로 책이 된 『정화 판뜨라』를 살펴보도록 하자. 현존 티벳어 역 텍스트는 전체가 세 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을 순서대로 근본판뜨라, 속(續)판뜨라, 속속(續續)판뜨라로 부르는 전통이 있는 것 같다. 『진실섭경』과 『비밀집회 판뜨라』 등의 경우, 이 순서가 성립 순서와 결부되어 있고 내용 면에서도 발전되어 있지만, 본 판뜨라에도 동일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지 아닌지는 현 시점에서 명확하지 않다.

먼저 제1장은 다음과 같은 신화적 배경으로 설명된다.

세존(석존)은 한때 여러 보살 및 신들과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 참가자들 속에서 ‘모든 악취를 정화하는’ 삼매에 들자, 백호로부터 광선이 나와 전 세계를 비추고, 그로 인해 모든 중생이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리고 그 광선이 ‘3악취의 생존으로부터의 해방자’라는 이름을 가진 대보살의 모습으로 바뀌자, 그 보살은 하나의 계승을 옮기고서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 악취를 정화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며 찬탄했다. 그곳에 함께 머물던 제석천이 찬탄하며 어떻게 악취에서 해방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세존에게 묻자, 그에 대한 대답으로 “부처는 최고의 서원을 발하여 무한의 복덕·지혜·신통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중생의 바람에도 응하여 구제활동을 행할 수 있다”고 설하였다.

석존과 제석천의 대화라는 신화적인 틀을 떠나서 제석천을 본 판뜨라의 입문자로, 석존을 그 스승으로 바꾸어 보자. 그러면 악취에 떨어진 자들을 한순간에 변화시켜 버리는 것 같은, 밀교에 의한 후생안락 획득의 길이 입문자에게 열려져 있다는 점이 주제로 떠오르게 된다.

제1장의 화제로 돌아가 보자. 제석천은 악취로부터의 구제가 화제가 되자 7일 전에 죽은 비말라마니쁘라바(Vimalamañiprabha)라는 신이 걱정되어 그가 어떠한 경우로 재생했는가를 석존에게 물었다. 그러자 석존께서는 그 신이 무간지옥으로 떨어져 1만 2천년 동안 무시무시한 고통을 받고나서 다른 지옥과 축생·아귀계에 태어나 다시 고통 받고, 인간계로 돌아온 후에도 불행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빌미로 하여 또 다시 죄업을 범하여 고뇌를 계속 짊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무서워 벌벌 떨었던 제석천은 비말라마니쁘라바가 이 ‘고뇌의 연속’에

서 벗어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미래의 중생들이 3악취에서의 생존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방법을 설해달라고 세존께 간원한다.

그러자 세존은 스스로 ‘모든 악취를 정화하는 왕’라는 이름의 주문(心呪)을 외워 중생이 악취로 떨어지는 인연을 끊고, 악취에 머무는 자들의 고통을 그치게 한 후, 가령 복덕이 적은 중생이더라도 이 주문을 외우거나 서사하여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악취를 정화하고, 때 아닌 죽음을 피하는 것이 가능한 주문(根本心呪)을 보였다고 말한다.

이것뿐이라면 앞서 설명했던 ‘멸악취왕다라니’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여기서는 덧붙여 ‘만다라의 규정에 따라 들어가서 관정을 수여받은’ 후에, 심주(心呪)를 외우거나 그 의의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며, 악취에 떨어진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정을 받은 자라면 더욱더 그 실천이 권장되고 있다.

이것은 주문에 대한 단순한 의존에 의례의 실천을 더하여 고도의 형식으로 발전해가는 밀교의 역사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밀교의 가르침은 뛰어난 스승이 자신과 동일하게 뛰어난 자질을 갖춘 자를 제자로 선출하여, 만다라를 보이고 관정을 수여하는 입문식을 행하는 가운데 가르침을 전수하고, 그 제자가 또 다시 새로운 제자에게 전하여 연속적으로 계승되어 간다. 결국, 그것은 만인에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거나 전할 수 있는 일정의 조건을 갖춘 자격자만이 관여를 허락하는 것이다. 만병통치약인 주문도 선택된 스승이 선택된 제자에 한해서 그러한 절차를 밟아 가르치는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을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짧은 주문이기 때문에 단순히 외운다거나 몸에 지닐 목적만이라면 입문식을 거치지 않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주문을 가르치거나 장례식에서 관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관정을 수여받은 정당한 계승자, 즉 스승으로 불리는 사람이어야만 했다. 결국 만다라와 관정은 후생 안락의 방법을 널리 가르치고 죽은 자를 악취로부터 탈출시키는 의례를 집행하며, 그러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두르가띠빠리쇼다나 탄뜨라』의 교선(教線)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입문을 허락받아 『두르가띠빠리쇼다나 탄트라』를 전했던 자는 악취로 떨어지지 않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실천하는 행자, 즉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라는 측면 이외에도 그것을 널리 가르치고, 자신과 동일한 위치로 이끌고자 하는 이타(利他)에 힘쓰는 자라는 측면도 함께 갖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석존은 이 만다라[통칭 ‘보명(普明)만다라’ 라고 한다] 및 관정의 실수법을 설하여 보인 후 그에 기초한 실수(實修)를 이어감으로써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취지를 설한 후에 제석천의 ‘죄장에 의해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구해낼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바램에 응하여 몇 종류의 의례를 나타내 보인다. 이 의례들은 그 성격상 장례의식과 추선공양(追善供養)을 집행하기 위한 매뉴얼로 간주되며 개략은 5절로 되어있는데, 그 중에 시체를 사용한 호마법[말하자면 화장법·다비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어쨌든 제석천들은 악취로부터의 구제법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기뻐던 그들이 가르침대로 행법[그것이 어떤 방법이었는데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을 실천하자 비말라마니쁘라바는 그 위력에 의해 순조롭게 지옥의 고뇌로부터 구출되어 도솔천에 태어났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걱정하고 있었던 신들과 함께 석존과 본 탄트라 공덕을 높이 칭찬하며, 그것을 간직하는 자들을 수호할 것을 맹세한다는 형태의 결말로 제1장은 끝난다.

한편, 『9불정 탄트라』의 제1장은 석존에 의한 주문 ‘모든 악취를 정화하는 왕’의 설시까지의 이것과 거의 동일하지만, 그 후에 위치하는 만다라를 이용한 의례 매뉴얼 부분은 전혀 다른 내용을 지니며, 비말라마니쁘라바의 도솔천 전생(轉生)으로 끝나는 결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이 매뉴얼 부분이 유가탄트라를 대표하는 인도 학승 아난다가르바(Ānandagarbha)의 정정(整定)한 의례문헌을 전거로 하여 편집되었던 것이 분명해졌지만, 여기에 이르기까지 보명만다라와는 다른 만다라의 창안과 이를 이용한 의례의 유행이라는 배경이 있었던 것 같다.

이와 같이 『정화 탄트라』 제1장은 ‘비말라마니쁘라바의 구제’라는 설화적인 틀을 횡축(橫軸)으로 하여 파악하고, ‘악취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의례적 방법’의 설시라는 목적을 종축(縱軸)으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다음과 같

은 의문이 제기된다. 이미 저지른 죄장의 과보로 악취에 도달하는 것은 ‘자업자득’이라는 원칙을 따르는 것이므로 당연한 결과이다. 그것을 자비에 바탕을 둔 구제활동의 결과라고는 해도 그렇게 간단히 초월하여 백지화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제1장에서는 보이지 않고, 겨우 “지혜(般若)와 방편에 의해 부모를 살해한 자나 불교를 부정하는 자와 같이 악업을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구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을 뿐이다.

그러면 제2장으로 눈을 돌려서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자.

석존을 대신하여 교주가 된 금강수(金剛手)는 먼저 석존을 중존으로 하는 제2의 만다라[통칭 ‘9불정 만다라’]를 설한 후에, 석존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비말라마니쁘라바가 악취에 떨어지게 된 원인과 경위를 말하고 있다.

비말라마니쁘라바는 전생에 부모를 살해한 대죄를 저지르면서 불교에 귀의했기 때문에 신으로 재생했지만, 그 과보가 다하자 과거의 악업에 대한 과보로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나 동일한 과거세에서 맺었던 석존과 제석천 등과의 인연에 의해 『정화 탄뜨라』를 통하여 구제를 받았다. 결국, 이 구제는 ‘자업자득’의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운을 얻을만한 업의 과보인 것이며, 매뉴얼에 따른 장례식을 제공받은 것도 그만큼의 선업을 쌓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말라마니쁘라바의 인연담을 마치고나서 『정화 탄뜨라』 제2, 제3장은 연속하여 10종의 만다라와 그것을 사용한 의식에 대한 설명을 이어 간다(4절을 참조). 여기서 주제는 악취로부터 구제된 자의 ‘그 다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첫째는 다시 악취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그 근본적인 계기인 죽음에 시점을 놓고 죽음을 피하는 방법, 보다 적극적으로는 ‘연명 장수 획득법’(延命長壽獲得法)이며, 둘째는 피구제자가 악취에 떨어지는 원인이 되는 악업을 행하지 않도록 이익을 주어 편의를 도모하는 방법으로서 전통적으로는 ‘4종갈마’(四種羯磨)라고 불리는 이익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의례로써 구체화된다.

3. 주석서의 개략

현재 우리들이 『두르가띠쇼다나 탄뜨라』의 주석서로 참조할 수 있는 것은 모

두 『정화 판트라』에 대한 것인데 티벳어역 판의 다섯 권만 있고 산스크리트어 원전은 발견되지 않는다.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붓다구히야(Buddhaguhya) 저작 『의미와 문자의 주석』, ②까마데누 저작 『상주(詳註)』, ③바즈라바르만(Vajravarma) 저작 『단정한 장엄』, ④저작자 불명인 『광명의 장엄』, ⑤아난다가르바 저작 『의례규칙의 상주(詳註)』이다.

①의 저자 붓다구히야는 유가판트라에 조예가 깊은 8세기말~9세기 전반의 학승으로 『진실섭경』을 중심으로 한 유가판트라의 강요서 『판트라르타바따라(Tantrārthāvatāra)』의 저자로서 명성이 높다. 이 책도 유전전기(流轉前期)에 티벳에서 번역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②는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어 이용할만한 가치는 높지만 유감스럽게도 저자인 까마데누라는 인물이 명확하지 않다.

③은 판트라 전체를 인용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우 유익한 자료이다. 저자인 바즈라바르만은 아난다가르바의 스승으로도 전해지고 있는 인물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9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⑤의 아난다가르바에 대해서는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저작의 저술도 9세기 중반으로 여겨진다. 판트라의 구성을 아디요가(ādiyoga) 이하의 3삼매(三三昧)의 조직으로 이해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지만, 기술이 간략하기 때문에 주석서로서의 이용가치는 떨어진다. 또한 저자 불명의 주석서인 ④도 3삼매의 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⑤와 일치한다.

이들 다섯 책의 설명은 서로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고, 만다라를 그리는 방식과 의례의 실천방법에서도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필시 판트라의 해석과 실천을 둘러싸고 여러 전승[유파적인 형태]이 존재했기 때문이겠지만, 그 실체는 그다지 분명하지 않다.

4. 만다라

한 마디로 『두르가띠빠리쇼다나 판트라』의 만다라일지라도 『정화 판트라』와

『9불정 판뜨라』와는 다른 점이 있다. 즉 전자가 12종류의 만다라를 설하는데 반해서 후자가 설하는 것은 11종류로 그 수가 서로 다르다. 다만 후자 가운데 10종류는 전자와 공통되기 때문에 만일 ‘두르가씨 계통의 만다라’라는 범주를 설정한다면 여기에는 총 13종류의 만다라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각 주석서는 이 만다라를 ‘출세간(出世間)만다라’와 ‘세간(世間)만다라’로 분류한다. 판뜨라 자체의 설에 따르면, 전자가 석존 또는 금강수라는 불(佛)의 측면에서 설해진 것과는 달리, 후자는 4천왕 등 육계에 머무는 것으로 여겨지는 신들이 중생의 이익을 맹세함으로써 출현하게 된 것이므로 확실히 성립의 유래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러나 판뜨라가 각 만다라와 관련하여 기술하고 있는 내용은 대체로 극히 간략하며, 그 중에는 구성하고 있는 존격의 이름조차 분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조단(造壇)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정보는 주석서나 의궤류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주로 바즈라바르만에 의한 『단정한 장엄』을 참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출세간 만다라

근본 만다라인 『정화 판뜨라』에 첫 번째 만다라로서 제1장에 설해지고 일체지(sarvavid, 普明) 비로자나를 중존으로 하기 때문에 ‘보명 만다라’로도 불린다. 티벳에서 전해 내려오는 현존 사례들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구성으로 묘사되는데, 주석서 간에 인정되는 전승의 차이가 실제로 다른 그림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내원(內院)에는 백색·4면(面)으로 금강저를 머리에 얹고 법계정인(法界定印)을 맺은 중존 일체지비로자나가 있고, 그 4방(四方)을 일체악취정화왕(一切惡趣淨化王)·보당(寶幢)·석가족주(釋迦族主)·개부화(開敷華)의 4여래와 더불어 4우(四隅)를 불안(佛眼)·마마끼·백의(白衣)·따라의 4명비(四明妃)가 둘러싸고 있다. 그 주위에 배치된 16쪽의 룬(輪)에 금강살타부터 금강권(金剛拳)까지의 금강계16대보살이 위치하며 또한 그 주위, 안쪽 뜰의 가장 바깥쪽에서 4개의 문을 갖춘 부분에는 8공양보살, 4섭보살, 현겁(賢劫)16보살이 위치한다. 보당, 개부화

와 같은 『대일경』적인 여래에 금강계만다라의 제존, 그리고 보다 후기에 유행했던 4명비 그룹도 편입되고, 기원이 다른 제존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만다라를 과도기적이고 절충적인 성격으로 보는 연구자도 있다.

한편 외원(外院)의 구성은 주석서 간에 큰 차이가 있고, 『단정한 장엄』에 의하면, 첫 번째 바퀴는 32폭의 룬으로 8연각(緣覺), 8비구, 8분노존, 8사자(使者)가 머물고, 64폭의 룬인 두 번째 바퀴(만다라의 가장 바깥쪽 바퀴)에는 4천왕(四天王), 10호방천(十護方天), 8요(八曜), 28성숙(二十八星宿)이라는 힌두교의 신격에 8인의 성선(聖仙)과 약사·간다르바 등 다른 종류의 존재가 위치하는데, 『의미와 문자의 주석』과 『의례규칙의 상주(詳註)』에서는 더욱이 다수의 존격을 편입하고 있고, 전자에서는 내원까지 합치면 470존에 이른다.

9불정만다라인 『정화 판뜨라』는 제2장 서두에서 설하는 만다라로 석가모니 세존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석가모니만다라’로도 불린다. 근본만다라에 비해 존격의 수가 적으며, 바즈라바르만은 ‘간략한 방식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설해진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석존을 둘러싼 8불정존이 본래는 죽은 사람의 죄장을 멸하는 공덕이 있는 존격으로서 신앙되고 있었다는 사실로 볼 때, 죽은 사람의 후생안락을 설하는 본 판뜨라의 만다라로 편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내원은 석가모니를 중존으로 하고, 주위 8폭의 룬에는 금강수(金剛手)·승불정(勝佛頂)·전륜불정(轉輪佛頂)·존승불정(尊勝佛頂)이 4방에, 광취불정(光聚佛頂)·최파불정(摧破佛頂)·제장불정(除障佛頂)·백산개불정(白傘蓋佛頂)이 4우(四隅)에 있어 총 8존이 위치하고, 또한 4우에는 금강향(金剛香)에서 금강도향(金剛塗香)까지 4공양천녀(供養天女), 4문에는 4섭보살(四攝菩薩)이 각각 배치된다. 석가모니와 금강수는 불정존에 포함되지 않지만 백산개불정까지의 9존을 한 세트의 파악한 것이 본 만다라의 명칭의 유래이다. 또한 판뜨라 자체는 외원에 관한 기술을 누락하고 있지만, 바즈라바르만의 설명에서는 8방호천과 3악취를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9불정 판뜨라』에는 보명만다라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신에 내원을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하는 것이 첫 번째 만다라로서 등장한다.

즉 석가모니를 중존으로 하고, 동쪽 가장자리에는 아축에 대응하는 금강(金剛)불정, 남쪽 가장자리는 보생에 대응하는 보(寶)불정, 서쪽 가장자리에는 아미타에 대응하는 연화(蓮華)불정, 북쪽 가장자리에는 산불정(傘佛頂)[이하 『정화 판뜨라』의 9불정 만다라와 동일]인 것이다.

8폭의 룬 위에 있는 8불정존이 석가모니를 둘러싸기 때문에 ‘9불정만다라’로 통칭되지만, 『정화 판뜨라』의 9불정 만다라에 등장하는 8불정이 초기 밀교경전 시대부터 신앙되고 있던 것과 달리 『9불정 판뜨라』의 8불정은 『진실섭경』 이후에 확립된 ‘5불’, ‘5부족’의 조직을 기존의 것에 짜 넣어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네팔과 티벳에 나타난 유행을 반영하는 현존 사례는 이러한 것이 많으며, 또한 이미 간행된 개설서 등이 9불정만다라로 지칭하는 것도 주로 이쪽이다. 『바즈라 발리』 및 『니슈판나요가발리』에서 『두르가띠빠리쇼다나 판뜨라』로 설명하고 있는 것 역시 이쪽 계통에 속한다.

무량수 만다라

앞서 보았던 비말라마니쁘라바와 같이 많은 죄장을 범하고 있는 중생은 한번 악취에 떨어지는 것을 면하더라도 그 업이 무르익으면 다시 죽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또한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수행에 힘쓰고 있는 진언행자에게 단명(短命)은 수행의 지속을 저지하는 큰 요인이다. 따라서 연명장수를 실현함으로써 악취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범부 및 성각(成覺: 깨달음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행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오려는 목적으로 설해진 것이 이 만다라이다. 붓다구히야가 이것을 ‘업장을 단절하는 무량수 만다라’라고 부르는 것 역시 이러한 성격을 고려한 것이다.

금강수가 존격을 출현시킬 때 암송하는 주문(陀羅尼) 가운데는 『아빠리미따유르(aparimitāyur) 다라니』(무량수명 다라니)나 소위 ‘아미타여래근본다라니’와 유사하게 오랜 기원을 지닌 아미타여래와 관련된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미타여래가 만다라의 주존은 아니다. 중존은 백색으로 금강저와 금강령을 지닌 금강수이며, 이를 아축·보생·아미타·불공성취의 금강계4불이 위요(圍繞)하고, 더욱이 금강훈향녀부터 금강도향녀에 이르는 공양여천이 4우에, 금강구(金剛鉤)

이하 4섭보살이 4문에 각기 위치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수명성취 만다라

죽음의 원인은 앞서 서술한 업의 과보 이외에도 사신(死神)의 사업(仕業)에 의한 생각지 못한 죽음이 있다고 여겨졌다. 무량수 만다라에 의해 죄업을 제거하고 사신을 복종시켜 중생을 생각지 못한 죽음으로부터 떼어놓음으로써 더욱더 연명장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설해진 것이 이 만다라라고 주석자들은 해석한다. 그러한 이유로 ‘사신을 파괴하는 만다라’라는 별명으로도 불리고 있다.

무량수복지자랑광명왕(無量壽福智資糧光明王)[무량한 수명과 복덕·지혜자랑과 광명을 지닌 왕]여래를 중존으로 하여 그 4방을 금강수(東)·허공장(南)·관자재(西)·분노(北, 바즈라바르만은 향삼세로 한다) 4존이 둘러싸는 것이 판뜨라에 규정되어 있는데, 바즈라바르만에 의하면 네 모퉁이에 금강희녀부터 금강무녀의 4천녀가 위치하고 있다.

또한 무량수 만다라에서 사용되었던 ‘아빠리미따유르 다라니’와 유사한 주문이 여기서도 무량수복지자랑광명왕여래의 근본심주(根本心呪)로서 사용되고 있다.

대락(大樂) 만다라

9불정만다라와 마찬가지로 교주 금강수가 직접 섰던 만다라이며, 명칭의 유래는 중존의 자리에 있는 금강살타(또는 보현)가 ‘대락을 갖춘 자’라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며, 『두르가띠파리쇼다나 판뜨라』에 설해진 만다라를 이용한 다양한 의례에서 사용되는 인계(印契)·대인(大印)·종자(種子)를 금강수가 실시하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만다라이다. 동시에 행자[아사리]가 자신의 깨달음을 용이하게 하고 타자의 고통을 없애어 즐거움을 주는 것을 꾀하는 2리행(二利行)으로서 실천하는 식재(息災)·증익(增益)·경애(敬愛)·항복(降伏)이라는 4종류의 수법과도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바즈라바르만의 설명에서는 만다라의 기본구성을 근본만다라와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중존이 금강살타 또는 보현이며, 그 바깥쪽 4방에 위치하는 것이 금강수·보수(寶手)·연화수(蓮華手)·비수수(毘首手) 4존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

이다. 4방존에는 익숙하지 않은 존격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데, 바즈라바르만은 이들이 순서대로 금강수·보생·무량광·불공성취라고 말하며, 또한 붓다구히야는 금강수·허공장·관자재·금강업(金剛業)이라고 언급한다. 또한 4존이 금강부족부터 갈마부족의 부족주·전문자라는 점에서 본 만다라를 ‘4부족전문자(四部族轉輪者) 만다라’라고 부르는 전통도 있다. 앞서 서술했던 4종류의 수법은 이들 부족의 구별과 대응시켜 실천할 필요가 있으며, 바로 여기에 4전문자와 4갈마와의 결합을 도모했던 의미가 있다.

또한 『9불정 판뜨라』에서는 이것이 최후의 만다라이다.

분노 만다라

중생에게 화복(禍福)을 가져오는 모든 장애마를 몰아내는 분노존 만다라를 설하고 싶다는 신들의 요청에 대답하는 형식이며, 교주인 금강수가 실시했다고 여겨지는 만다라이다. 부처는 자비를 갖고 부드럽게 중생을 구제하는 존재이지만, 온화한 방편을 받아들이지 않는 흉폭한 성품을 지닌 자들을 상대할 때에는 ‘독으로써 독을 제거한다’와 같이 분노도 드러내어 보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형상(분노형)을 취하여 항복시키거나 끌어들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한 존격은 부동명왕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교적 이른 단계인 초기밀교부터 등장하고 있다.

『정화 판뜨라』에서만 설해진 이 분노 만다라의 기본구조는 중존으로서 금강살타의 분노형의 하나인 분노화염(忿怒火焰)이 위치하고, 그 바깥쪽을 12분노존이 머무는 12폭의 료이 둘러싸고 있으며, 료의 바깥에는 4나찰녀와 문지기 존이 머문다. 중존은 금강화염으로도 불리기 때문에 ‘분노금강화염 만다라’라고 전하는 주석서도 있다.

12분노존은 그 진언에 의하면 조명삼세(照明三世)·조복삼세(調伏三世)·파괴삼세·포견삼세(捕 緝三世)·감로정계(甘露頂髻)·시장(時杖)·시사자(時使者)·지삼중(知三種)·시구(時鉤)·시삭(時索)·시연착(時戀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 추상적이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뿐이지만, 붓다구히야는 감로정계(甘露頂髻)부터 지삼중(知三種)의 4존을 이전부터 저명했던 분노존인 감로군다라

(甘露軍荼利)·청장(靑杖, nīladaṇḍa)·부동(不動)·마두(馬頭)로 소개하고 있다. 외륜(外輪)의 4모퉁이에 위치하는 4나찰녀는 유화상(柔和相) 만다라에 나타난 4명비에 해당하는데, 여기서는 이들도 분노형이며, 시나찰녀(時羅刹女)·시아녀(時牙女)·시아녀(時夜女)·시아차녀(時夜叉女)로 명명된다. 또한 4문지기존 역시 분노의 형상을 취하여 4문을 방호한다.

2) 세간 만다라

주석자들이 통합하여 ‘세간 만다라’로 지칭하는 것은 다음의 6종 만다라, 즉 4천왕 만다라, 호방천(護方天) 만다라, 8요성숙(八曜星宿) 만다라, 8용(八龍) 만다라, 9바이라바(bhairava) 만다라, 제천(諸天) 만다라이다.

지면 관계상 각각의 명칭을 소개할 수는 없지만, 모두 힌두교의 신들이 금강수를 예배하고 자신의 심주(心呪)를 바치는 것과 더불어 모든 중생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유익한 행위를 실천할 것을 맹세하며, 금강수가 중존인 만다라를 구성하는 동일한 구조를 취한다. 그러므로 이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중존인 금강수 주위에 신들이 위치하는 형태를 취한다. 다만 8요성숙, 9바이라바, 제천 등 이 세 가지 만다라는 금강수의 분노형인 항삼세를 중존으로 하고 있다.

신들이 금강수에게 바치는 ‘심주’는 단음절의 주문이지만 원래는 심장을 표현하는 말이며, 이것을 ‘바친다’는 것은 자신이 ‘살고 죽는 것의 여부’(生殺與奪)를 상대에게 맡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밀교 의례에서 명상을 통해 존격을 출생시킬 때에 그 핵(核)이 되는 것이므로, 이 심주를 밝히는 것은 제존이 자신을 불러내어 그 위력을 이용할 수 있는 암호를 공표하는 것과 같다.

바즈라바르만에 의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신들은 중생의 장수를 저해할 수 있는 악마적인 성격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악한 면을 잠재우는 동시에 반대로 세속적인 이익을 중생에게 부여하는 선한 자가 되도록 금강수가 가지(加持)했던 결과이기도 하지만, 힌두교 신들을 밀교의 테두리 안에 받아들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로서 위치지음으로써 힌두교와의 융화를 꾀하려고 했던 결과일 것이다.

5. 의례의 조직

1) 개략

밀교에서도 행(行)의 존재방식은 자리(自利)와 이타(利他)로 규정되며, 각각 의례의 실천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에 관해 『두르가띠빠리쇼다나 탄뜨라』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미 이 가르침에 정통한 행자(아사리)의 입장에서 보면, 자리(自利)는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유가관법과 편안한 마음으로 수행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는 4종갈마와 대응된다. 또한 이타(利他)로는 ‘악취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막고 이익을 준다’는 이 탄뜨라의 주제와 관련된 모든 의례에 맞추어져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①악취로부터 구제를 다루는 장례의식·추선의례(追善儀禮), ②구제한 중생의 장수연명을 목적으로 하는 의례, ③그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4종법(護摩法)이 열거된다. 또한 여기에는 이상과 같은 의례의 담당자, 다시 말해 중생 구제를 실천하면서 그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새로운 행자의 양성과 관련된 의례, 즉 2절에서 언급했던 관정도 포함된다.

이하에서는 중요한 점을 추려내어 그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2) 관정

새로운 만다라에 들어가 가르침을 계승하는 자는 매번 이 관정을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다라의 수만큼 관정을 행하기 위한 의례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두르가띠빠리쇼다나 탄뜨라』 전체에서는 13회의 관정의례를 언급하고 있다.

관정은 행자와 만다라를 구성하는 특정 존격을 결합하는 장(場)이며, 그 결과 그는 존격과의 합일 및 일체화를 달성하는 능력을 얻고, 그 위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관정에서 사용되는 요소 중에는 각각의 존격에 해당하는 고유한 상징[가령, 주문과 삼매야형이라 불리는 상징, ‘인계’(印契)로도 불린다. 양손으로 표현하는 제스처 등]이 존재하고, 그들은 당연히 등장하는 존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 이외의 기본적 구성—의례 중 행해지는 소작과 그 실

수 순서 등—은 『두르가띠빠리쇼다나 탄뜨라』가 설하는 13회 그대로 관정전체에 공통되는 것이며, 『진실섭경』에서 설하는 것에 준하는 방식이 채용된다. 서계(誓誡)·투화득불(投華得佛)·병(瓶)에 의한 관수 등 주요한 요소는 『진실섭경』에 포함된 것이며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3) 구제와 연명

관정(灌頂)

『두르가띠빠리쇼다나 탄뜨라』에 나타난 관정의 경우 2)에서 보았듯이 일반적인 기능 외에 이 탄뜨라의 고유한 역할이 있다. 그것은 악취에 떨어졌거나 떨어지려는 중생을 구제하는 수단이며, 요약하면 ‘장송의례(葬送儀禮)·추선의례로서 집행되는 관정’이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정화 탄뜨라』 제1장[『9불정 탄뜨라』에서는 제3장]에서 서술하는 것인데, 행자는 망자의 유체(遺體)가 있다면 그것과 마주보고, 없는 경우에는 망자의 모습 또는 이름을 적은 것을 준비한다. 그리고 깊은 명상에 든 상태에서 망자를 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제자에게 행하는 의식과 동일한 순서로 의식을 집행한다. 관정의 장소로 초대된 망자는 만다라 속으로 도입됨으로써 부처의 자비에 기초한 구제행을 받게 되어 악취와의 결별이 이루어진다. 현재 일본 진언종에서 행하고 있는 인도작법(引導作法)과 기본적인 사유방식은 같다.

화장(火葬)

관정이 장송·추선의례에 대응되는 것으로 서술하였는데, 근본 탄뜨라에서는 또 한 가지 저명한 밀교의례와 장례의식의 대응이 나타난다. 이는 2절에서 잠깐 다루었던 것처럼 호마의례를 전용(轉用)한 일종의 화장법이며, 화로 아래에 근본(普明) 만다라의 내원을 그리고, 거기서 유체를 다비하며 제존에게 헌공을 행한다. 후에 유골·유회(遺灰)를 사용하여 불상과 불탑을 조성하고, 그것을 향해 일체악취정화왕 진언을 염송하는 것이다. 탄뜨라 본문과 주석의 설명에서도 이것은 앞서 서술한 ‘관정에 의한 장송’과는 떨어져 독립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의례였으며, 장례의식의 방식은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관정에 의한 장송’에서 유체가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죽은 사람의 이름을 쓴 종이 등을 유체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것을 화로에서 태우는 것이 다비의 집행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추선(追善)

『두르가띠빠리쇼다나 판뜨라』는 이외에도 사자의 후생안락을 목적으로 행하는 일종의 염송법을 설한다. 내용상 추선공양에 대응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 가지는 작은 불탑을 만들어 그 속에 사자의 이름과 일체약취정화왕 다라니를 함께 쓴 것을 봉합하여 공양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일체약취정화왕 다라니를 여러 번 계속 암송하는 것이다. 불탑에 서사한 경전을 넣어 공양하는 것과 다라니를 반복해서 염송하는 것은 모두 초기대승불교 시대부터 행해왔던 전통적인 의례이며, 그것을 일체약취정화왕 다라니와 연결시켜 받아들인 것이다.

연명장수(延命長壽)

무량수 만다라와 관련하여 설해진 것이 연명장수를 성취하려는 의례이다. 도회에 그려진 본존을 향하여 올리는 공양과 주문의 독송을 중심으로 하지만, 그려지는 것은 무량수 만다라의 중존인 금강수가 아니라 금강수명존(金剛壽命尊)이다. 율륜 속에 그려진 금강수명존은 장신구로 화려하게 몸을 장식하고 오른손은 시무외인을 취하며 왼손은 여원인을 취하여 여원인의 앞쪽 끝에 감로를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금강수명존 앞쪽에는 머리 위로 합장하고 예배하며 금강수명존을 우러러보는 행자의 모습이 그려진다.

본존에게 훈향·꽃·등불·물·다섯 종류의 식물을 바치는 공양을 행하고 나서, ‘옴, 복덕에 있어서, 복덕에 있어서, 큰 복덕에 있어서, 무량한 복덕에 있어서, 무량한 수명과 복덕 및 지혜자량을 증장하는 분께 귀의합니다’라는 심주(心呪)를 10만 번 암송한다. 그리고 만월의 밤에는 특별한 공양과 철야 염송을 행한다.

호마(護摩)

앞서 소개했던 화장법으로서의 호마 이외에, 제2장의 ‘수명성취 만다라’ 이후

로는 다음과 같이 4종갈마에 대응시키는 형식도 설해진다.

식재(息災): 악취에서 고통 받는 중생의 죄장을 멸하고, 그곳으로부터 구제한다. 화로는 원형이며, 중앙에 8폭의 룬보(輪寶)를 그린다.

증익(增益): 선취(善趣)에 재생한 중생에게 더욱 더 안락을 가져온다. 화로는 사각형이며, 중앙에 보주(寶珠)를 얹은 연화를 그린다.

경애(敬愛): 신들을 뜻한 바대로 다르게 하여 중생의 이익을 도모한다. 화로는 활형이며, 중앙에 활과 화살을 얹은 적(赤)연화를 그린다.

항복(降伏): 중생을 살해하는 장애마를 몰아낸다. 화로는 삼각형이며, 중앙에 9고저와 3고저를 합친 갈마저(羯磨杵)를 그린다.

각 항목에서 사용되는 화로의 형태와 거기에 그려진 상징물은 다른 탄트라에서 설해진 것과 거의 공통되지만, 그 목적이 중생을 악취에서 구제하는 것과 중생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식재에서 이익을 주려는 대상자(망자)의 육신과 뼈, 그 이름을 적은 잎을 태우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앞서 서술한 화장이나 추선과 동일한 성격을 띠며, 그것을 기능적으로 보완한 의례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References)

SKORUPSKI, Tadeusz, THE SARVADURGATIPARISODHANATANTRA, Delhi: 1983.

乾仁志(1989), 「仏説大乘觀想マンダラ淨諸惡趣經について」, 『印仏研』第三七卷
二号.

川崎一洋(2001), 「チャンパ・ラカン現存の惡趣清淨マンダラについて」, 『高野
山大学大学院紀要』第五号.

롤프・ギーブル(1993), 「『拔濟苦難陀羅尼經』雜考」, 『東方学』第八六号.

ABSTRACT

Durgatipariśodhana-tantra: For the purpose of saving the dead and procuring a better rebirth for the dead

Kang, Hyang-sook

Researcher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Durgatipariśodhana Tantra introduces the contents of esoteric Buddhist rituals such as maṇḍala and ābhiṣeka, which are built to escape the dead from the worlds of hell, hungry ghosts, and animals after death. In addition, there are funeral ceremonies and rituals for saving living beings from evil worlds, rituals for the long life of saved living beings. And It explains how to perform the four types of homa to save living beings: śāntika[息災], pauṣṭika[增益], vaśīkaraṇa[敬愛], abhicārika[降伏].

Ācārya, who has been awarded the ābhiṣeka of the esoteric Buddhism, creates a maṇḍala and performs the ābhiṣeka to save the dead who have fallen into evil worlds. ‘Infinite Life Maṇḍala’ is a maṇḍala that is intended to bring benefits to both ordinary people who are afraid of falling into evil worlds and practitioners who aim to achieve enlightenment by obtaining longevity. ‘Life Achievement Maṇḍala’ is a maṇḍala to save living beings from unexpected death and achieve long life by obeying the god of death. ‘Wrath Maṇḍala’ is an wrathful Buddha maṇḍala that drives away all the hindrance demons that bring misfortune to living beings.

Ācārya creates this maṇḍala and performs a ābhiṣeka ritual. The ābhiṣeka ritual enables the union of the ācārya and the specific buddha that make up the maṇḍala, and the ācārya can use the power of the buddha. According to this principle, ācārya invites the dead to the place of ābhiṣeka so that they can enter the maṇḍala,

the world of Buddha. And at this time, the dead is freed from evil worlds by the mercy of Buddha.

Keywords : *Durgatipariśodhana-tantra*, Longevity Rituals, Homa, Ābhiṣeka, Infinite Life Maṇḍala